

---

碩士學位請求論文

# 英語의 音節과 強勢理論의 教育的 活用

— 특히 音節·音律 音韻論을 中心으로 —

指導教授 金 鍾 勳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金 孝 純


1991年度

---

# 英語의 音節과 強勢理論의 教育的 活用

— 특히 音節·音律 音韻論을 中心으로 —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提出者 金 孝 純

指導教授 金 鍾 勳


1991年 7月 日

金孝純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1年 月 日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主審 黃 彦 澤 

副審  

副審 金 鍾 勳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 목 차

I. 서 론 .....	1
II. 음절 음운론과 발음 교육 .....	3
2.1 음절 이론의 타당성 .....	3
2.2 음절 구조의 양론 .....	8
2.3 CV음운론과 음절 구조 .....	11
2.4 발음 교육에의 활용 .....	13
2.4.1 음절 구조의 비교 .....	14
2.4.2 문제점 .....	16
2.4.3 음절화의 법칙 .....	18
2.4.4 음절성 자음 .....	20
III. 운율 음운론과 발음 교육 .....	24
3.1 강세 설명의 관점 .....	24
3.2 음보 .....	28
3.3 운율 격자 .....	31
3.4 발음 교육에의 활용 .....	35
3.4.1 음보 인식 .....	35
3.4.2 리듬 이해 .....	37
3.4.3 강세와 음절의 관계 .....	40
IV. 결 론 .....	43
참고문헌 .....	46
영문초록 .....	49

## I. 서 론

본고의 목적은 생성 음운론의 최근 흐름이라 할 수 있는 음절 음운론(syllabic phonology)과 운율 음운론(metrical phonology)의 논제들이 영어 발음의 이해와 교육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 음절과 강세 이론은 실제 교육 현장에 어떤 식으로 적용되면 효과적인가?

지금까지 음운론에서는 여러 이론들이 제시되어 많은 진전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용적인 영어의 발음 교육을 위해서 그 이론들이 활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통주의 음운론, 구조주의 음운론, 초기생성음운론, 후기 생성음운론으로 이어지는 음운론의 발전 과정 속에서 구조주의 음운론만이 겨우 대조 분석(contrastive analysis)이라는 방법론을 도입하여 모국어와 목표어의 음운 조직을 비교하고 그 자료를 학습 현장에 이용하였을 뿐 생성 음운론의 테두리에서 전개된 음운론은 아직 외국어 발음 교육에 적절히 이용되지 않고 있다.

생성 음운론이 궁극적으로 발음 교육에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은 정국(1988)에 의해 제시된 바 있거니와 그의 말대로 생성 음운론이 묵시적인 전통적인 사고와 일치되는 면이 많고 또한 심리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며<sup>1)</sup>, 모국어 화자에 내재하고 있는 음운체계를 발견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므로 생성 음운론의 논제들은 발음의 이해 및 습득과 밀접한 관련을 시켜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최근의 생성 음운론의 중요한 이론인 음절 음운론과 운율 음운론의 기본 내용, 형식 방법론이 어떻게 영어의 발음 교육에 적용 가능한지를 제

---

1) 정국, "음운론의 제 이론과 외국어 발음 교육," 영어 영문학 34. (서울: 한국영어 영문학회, 1988), pp.368 -374.

시하겠다. 이같은 목적을 위해 이 논문은 먼저 이론적 측면으로서 음절 음운론과 운  
울 음운론의 관심사를 간략히 논하고, 이어서 실제적인 측면으로서 그 내용이 영어  
발음 교육을 위해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하겠다.



## II. 음절 음운론과 발음 교육

여기에서는 음절 음운론의 기본 내용을 검토하고 이것을 어떻게 영어의 발음 교육에 응용할 수 있는지를 보이도록 하겠다. 음절 음운론은 사실 현대 음운론의 핵이라 부를 수 있을 만큼 광범위한 논제를 포함하고 있으나 본고는 어디까지나 그것을 영어의 발음 교육에 관련시키는 데 근본적인 취지가 있으므로 본장에서는 음절 이론이 과거의 분절음 중심의 음운 기술보다 어떤 점에서 타당한지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 2.1 음절 이론의 타당성

영어의 음운 현상을 기술할 때 분절음 단위가 아니라 음절이란 단위를 도입해야 타당하다는 점은 세 가지 관점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 Selkirk(1982), 김종훈(1990)이 지적한<sup>2)</sup> 바와 같이, 그 첫째는 분절음 배열 제약을 잘 언급하기 위해서는 음절 구조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이며, 둘째는 분절음 음운론의 여러 음운 현상을 간결하게 기술하기 위해서는 음절이란 단위를 규칙의 환경 속에 포함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셋째는 강세와 억양은 음절 크기의 단위로 분석될 때 더 타당하게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The reasons generally given in support of the syllable as a theoretical construct are threefold, and English provides pertinent evidence in each of these areas. First of all, it can be argued that the most general and explanatory statement of phonotactic constraints in a language can be

---

2) Selkirk(1982)과 김종훈(1990)은 음절이 언어학적으로 중요한 단위가 됨을 잘 지적하고 있다.

made only by reference to the syllabic structure of an utterance. Second, it can be argued that only via the syllable can one give the proper characterization of the domain of application of a wide range of rules of segmental phonology. And third, it can be argued that an adequate treatment of suprasegmental phenomena such as stress and tone requires that segments be grouped into units which are the size of the syllable<sup>3)</sup>.

우선 영어의 분절음 연결 제약이 음절이란 단위를 이용해야 잘 설명된다는 점은 무슨 뜻일까?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자. 영어 단어 중에서 /tr/로 시작되는 단어는 있으나 /tl/로 시작되는 단어가 없다는 제약을 어떻게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예를 들어 \*tlay란 단어는 없으나 tray란 단어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더구나 atlas, cutlas, partly는 왜 허용이 가능한가?

이에 대한 대답은 무엇보다 음절이란 단위를 기본으로 도입할 때 간결히 해결할 수 있다. 즉, /tl/은 음절초 자음군이 될 수 없는 반면, /tr/은 가능한 음절초 자음군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atlas와 cutlas및 partly가 가능한 것은 /t/와 /l/이 각각 음절말과 음절초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며 이 경우는 /t/와 /l/사이에 음절 경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단어들은 at-las, cut-las, part-ly식으로 음절화된다<sup>4)</sup>.

Kahn(1976:33-34)이 제시하는 \*atktin이 영어의 가능한 단어가 될 수 없다는 것도 음절이란 단위를 이용해야 설명이 될 수 있다. 그것은 우선 영어에서는 음절말에 /tk/로 끝나는 단어가 올 수 없는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음절초에서도 /kt/의 연결체가 허용될 수 없다.

3) Elizabeth. O. Selkirk. "The Syllable," *The Structure of Phonological Representations* (part II), Hulst, H. van der & N. Smith. eds. (Dordrecht, Holland: Foris, 1982), p.337.

4) 음절화에 대해서는 뒷 부분에서 언급할 것임.



따라서 영어 단어의 분절음 연결 제약은 음절을 이용하여 설명할 때 간결해진다. 결국 영어의 가능한 단어 구성은 영어의 음절 구조 제약을 만족시키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다음으로 음절이란 단위가 타당하다는 점은 영어의 여러 음운 현상은 분절음 중심이 아니라 음절이 그 적용 영역에 포함되어 기술될 때 간결히 설명된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영어의 기식음화(aspiration)나 설탄음화(flap)현상은 음절을 음운 환경에 포함시켰을 때 간결히 기술될 수 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분절음 위주로 음운 기술을 하는 과거의 음운론에서의 기식음화 현상을 보자. 음절을 이용하지 않는 종래의 전통적인 음성학에서는 영어의 기식음화 현상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1) All voiceless consonants are aspirated at the beginning of a word<sup>5)</sup>

그리하여 이 진술에 따라 pin, ten, kin 등의 /p, t, k/는 어두에 위치하므로 기식음화를 일으키지만 spin, step, skin 등에서는 /s/다음에 무성 파열음이 오므로 기식음화를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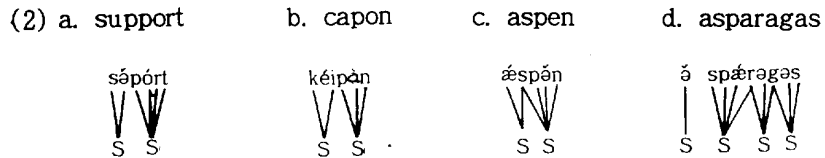
그러나 전통적인 기식음화에 대한 설명에는 문제점이 있다. 왜냐하면 영어를 말하는 화자들은 apartment, contain, unkind 등의 /p, t, k/를 어두 위치가 아닌 데도 기식음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역시 음절이란 단위를 도입할 수 밖에 없다. 위 단어들은 a-part-ment, con-tain, un-kind 등으로 음절화(syllabification)가 되므로 /p, t, k/는 어두가 아니라 강세를 받는 음절초에 올때 기식음화를 일으킨다고 설명하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음절이란 단

5) Clifford H. Prator & Jr. & Betty W. Robinett, *Manual of American English Pronunciation* (New York : Holt Rinehart & Winston, 1985), p.102.

위를 도입함으로써 이전의 분절 음운론에서 다뤄지던 기식음화 현상은 한결 간단히 설명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서 잠시 영어의 기식음화 현상을 수행도를 통해 설명하는 Kahn(1976 : 44)을 보자.



위 수행 (2a), (2b), (2c), (2d)에서 /p/는 그 성격이 동일하지 않다. 우선 (2a), (2b)의 /p/는 음절초에 오는 반면에 (2c), (2d)의 /p/는 /s/다음에 오고 있다. 따라서 (2a)와 (2b)의 /p/는 어두가 아니라 음절초에 위치하므로 기식음화되며 (2c)와 (2d)의 /p/는 음절초가 아니므로 기식음화가 되지 못한다고 간단히 말할 수 있다.

영어의 음운 현상에서 분절음보다 음절을 도입할 때 간결성을 포착할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로서 영어의 /t/가 유성음 [D]로 되는 설탄음화(flap)현상을 들 수 있다. 종래의 이론에 따르면 /t/는 V'—V 환경에서 설탄음화된다. 그러나 contrast, tomorrow의 /t/는 앞에 모음이 오지 않으므로 설탄음화되지 않으며 late의 /t/는 그 다음에 모음이 나오지 않으므로, statue, attendant의 /t/는 그 다음에 강세 모음이 오기 때문에 설탄음화되지 않는다.

그런데 dirty, shouting처럼 왼쪽에 모음이 위치하고 오른쪽에 전이음이 올때도 자연스럽게 설탄음화된다. 또한 'get#a bag', 'get##Annie to do it in time' 등의 /t/도 설탄음화한다.

따라서 분절음 위주의 전통적인 기술 방식으로는 설탄음화 규칙이 아래와 같이 복잡하게 기술될 수밖에 없다.

$$(3) t \rightarrow D / [ - \text{con} ] \text{ — } ( \# / \# ) \begin{bmatrix} + \text{syllabic} \\ - \text{stress} \end{bmatrix}$$

그러나 이 현상을 음절이란 단위를 이용하여 기술한다면 훨씬 더 간결해진다. 즉, 영어의 /t/는 모음성(-consonantal)과 동음절 모음(tautosyllabic vowel)사이에서 설탄음화한다.<sup>6)</sup> 이를 규칙화하면 다음과 같다.

$$(4) t \rightarrow D / [ - \text{cons} ] \text{ — } [ + \text{syllabic} ]$$

S

좀 더 쉽게 말하면 위의 규칙은 /t/가 모음 및 전이음과 모음 사이에 올 경우 비강 새 음절초에서 설탄음화를 일으킨다는 것이다.<sup>7)</sup>

마지막으로 음절이 음운 기술에 필요한 이유는 영어의 강세는 음절을 이용할 때 간결히 설명될 수 있다는 데서 비롯된다. 종래의 교육 현장에서도 학생들에게 강세를 가르칠 때는 주의깊은 교사들의 경우, 영어 단어를 제시하고 그것이 몇 음절에 강세가 있는지를 가르침으로써 음절과 강세를 적절히 관련시키려 노력해온 바 있는데, 음절이론에서도 Chomsky & Halle(1968)식으로 분절음에 기반을 두어 강세를 설명하지 않고 음절을 이용해야 강세가 간결히 기술된다는 입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Chomsky & Halle(1968)식으로 América와 muséum의 강세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복잡한 규칙을 세워야 한다.

6) 더 구체적인 것은 Kahn(1976: 60)을 참조

7) Kahn(1976)은 이 때 설탄음화한 t를 첫음절의 말이기도 하고 둘째음절의 시작이기도 한 양음절로 처리하고 있다.

$$(5) a. V \rightarrow [1 \text{ stress}] / \_\_\_ C_0 \left[ \begin{array}{c} \text{tense} \\ \text{V} \end{array} \right] C[-\text{tense}] C_0 ]_N$$

$$b. V \rightarrow [1 \text{ stress}] / \_\_\_\_\_\_ C_0 \left[ \begin{array}{c} \text{tense} \\ \text{V} \end{array} \right] C_0 ]_N$$

즉, 그들은 강세를 설명하기 위해 표기 규약과 규칙순 및 약음군과 강음군의 개념을 자세하게 구분해서 위와 같은 종류의 규칙으로 복잡하게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 단어들의 강세 할당은 음절을 이용할 때 간결히 기술된다. 영어의 어떤 단어에서 단모음으로 끝나는 것을 경음절(light syllable)이라 하고, 단모음과 자음으로 끝이 나던지 아니면 장모음으로 끝나는 것을 중음절(heavy syllable)이라 한다면, 끝에서 둘째 음절이 경음절인 경우에는 América에서처럼 바로 왼쪽인 셋째 음절에 강세가 할당되며, 중음절일 때는 muséum처럼 바로 둘째 음절에 강세가 배당된다고 설명하면 간단해진다.

지금까지 영어의 음절이 음운 기술에 포함되어야 타당하다는 점을 영어의 분절음 배열 제약, 음운 현상, 강세 현상으로 나누어 고찰해 보았다. 결국, 분절음 위주의 음운 기술 방식보다 음절 위주의 기술 방식이 간결성과 일반성의 면에서 훨씬 더 타당함을 이해할 수 있다.

## 2.2 음절 구조의 양론

이번에는 음운 기술의 기본 단위를 음절로 볼 때 그것을 어떻게 구조화하면 좋은지를 살펴보자. 음절의 구조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분절음의 선형적(linear) 배열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관점과 내부 구조를 가진 계층적(hierachical) 조직으로 되어 있다는 관점이 있다.

Pulgram(1970 : 44- 45)은 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음절을 경계 표시와 음

소 배열 제약으로 파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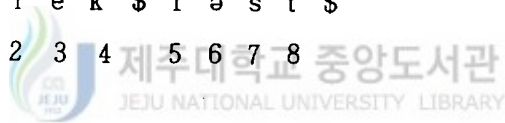
...the phonotactic syllable is a unit whose boundaries must be sought through phonological, distributional criteria hence in accordance with the phonetic rules of the language under analysis.<sup>8)</sup>

선형적 음절 구조는 단순히 영어의 단어를 단선적 또는 일선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어 단어 strand를 CCCVCC로 구조화시키는 방법이다. 이 입장에서 음절을 두 음절 경계 표시 사이에 놓인 분절음의 연속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선형적 구조 이론은 Bloch & Trager(1942), Trager & Smith(1951), Jones (1956), Haugen(1956), Hoard(1971), Vennemann(1974)이 많이 연구한 분야이다. 다음의 선형적 구조를 보자.

(6) \$ C C V C \$ C V C C \$<sup>9)</sup>

\$ b r e k \$ f a s t \$

1 2 3 4 5 6 7 8



여기에서 1과 2, 3과 4, 5와 6, 그리고 7과 8사이에는 그들 나름대로 분절음 연결 관계에 있어 제약을 갖는다. 따라서 이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선형적 음절 구조에서는 음절초 자음군, 공명음 요소, 음절말 자음군들이 그들간에 음소 배열 제약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언급을 하여도 Selkirk(1982 : 340)이 지적한대로, 제약을 언급하는 아무런 일반 원칙이 없기 때문에 임의적인 진술이 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음절 경계를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도 이 접근법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점으로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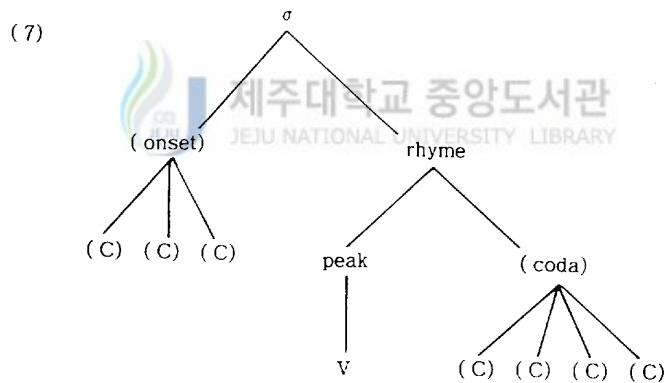
8) E. Pulgram, *Syllable, Word, Nexus, Cursus* (The Hague : Mouton, 1970), pp.44- 45.

9) 여기서 \$는 음절 경계 표시(syllable boundary marker)를 나타낸다.

음절 구조의 계층적 입장을 지지하는 Selkirk(1982 : 337)은 음절 구조가 통사구조를 나타내는 수형도와 유사한 내적 구조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The notion of the syllable that will emerge from this examination of English is therefore one of a hierarchical unit; an internally structured tree quite analogous to a tree representing syntactic structure.<sup>10)</sup>

Selkirk(1982)을 비롯하여 Vergnaud & Halle(1978), Fudge(1987, 1989)는 이런 관점에 따라 음절을 onset과 rhyme으로 나누고 rhyme을 다시 peak(nucleus)과 coda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서 onset은 음절초 자음군, peak은 음절핵, coda는 음절말 자음군을 나타내는데, 이들 내부 조직에는 각각 일반적인 음소배열 제약이 있어서 음절을 선형적으로 나타낼 때보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계층적 음절 구조를 수형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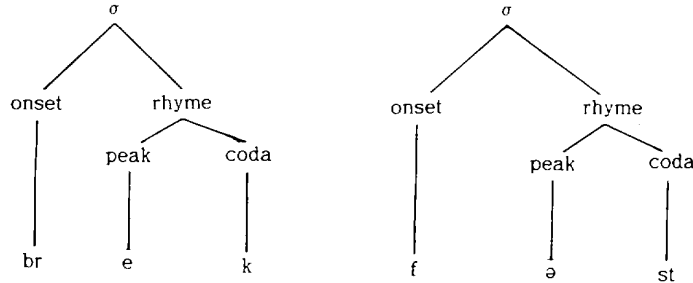


여기에서 ( )로 표시한 것은 그 요소들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임의적 (optional)이란 뜻이다. 그러나 모음은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으로 필수적

10) Elizabeth O. Selkirk, *op. cit.*, p. 337.

(obligatory)이다. 이 틀을 이용해 앞서 제시한 breakfast란 단어를 계층적으로 표시하자.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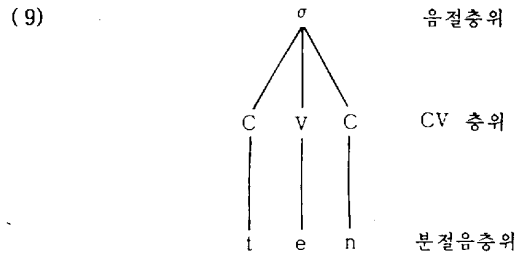
이 수형은 선형적 구조와는 달리 음절이 onset과 rhyme으로 갈라지며 rhyme이 다시 peak과 coda의 한 단위로 되어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breakfast란 단어는 계층 조직에 의해 break이 한 음절, fast가 또 한 음절, 이렇게 해서 두 음절로 이루어진 단어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준다. 물론 onset, peak, coda에는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들 간에 지켜야 할 제약이 항상 존재한다.

결국 음절 구조는 음절을 구성하는 분절음들이 선형적으로 배열되어 있거나 아니면 계층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다는 견해로 양분되어 있으나 후자가 더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음에는 교육현장에 관련될 수 있는 교수모형으로 CV음운론과 음절 구조에 대해서 다루겠다.

### 2.3 CV음운론과 음절 구조

Kahn(1976)의 음절 구조를 확장시켜 음절층과 분절음층 중간에 CV층을 설정한 Clements & Keyser(1983)의 음절 이론을 CV음운론이라 한다. 세 개의 층을 영어 단어 ten을 예로 들어 수형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삼층적 모형의 CV음운론은 Clements & Keyser(1983)가 지적한 바, 세 가지 논제를 밝히는 데 핵심이 있다. 첫째는 음절 구조를 지배하는 보편적 원리를 찾는 것이며, 둘째는 언어마다 다른 음절 구조 유형을 언급하며, 셋째는 음절 구조를 지배하는 원칙들을 설정하는 것이다.

첫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CV음운론은 (9)의 구조를 통해 CV층의 CVC들이 모두 음절층의 직접 지배를 받으며 분절음층의 t, e, n 요소들은 각각 CVC들에 의해 직접 지배를 받는다고 간주한다. 통사론에서와 유사하게 직접 성분 구조를 보이는 각 층들은 연결선에 의해 적형조건(well-formedness)의 지배를 받는다.

여기서 C와 V는 전통적인 개념의 자음과 모음의 범위를 넘어 때로는 자음과 모음에 상관없이 자유로이 연결될 수 있으며, CV층과 분절음층은 반드시 1:1대응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C요소에 의해 지배받는 분절음은 음절적 기능을 하지 못하며(nonsyllabic), V요소에 의해 지배받는 분절음은 어떤 것이라도 음절적 기능(syllabic)을 담당한다.

둘째, CV음운론은 언어마다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는 핵음절(core syllables)유형이 있다는 것을 밝히는데 역점을 둔다. 이 경우 핵음절은 CV구조상으로 한 언어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음절 구조(maximal syllable structure)를 뜻한다. CV를 기본이 되는 음절 구조라 할 때 영어의 경우 모음 앞 C를 탈락시키면 V만이 남게 되며, C를 첨가시키면 CVC의 구조가 생기고, 또 CVC에서 C를 탈락시키면 VC구조가



나타난다.

셋째, CV음운론은 언어마다 특이한 음절 구조 원리를 다루는 데 주안점을 둔다. 핵음절이 C나 V를 갖도록 허용하는 언어들이 있으면 적형적인 핵음절은 CCCVCC, 또는 CCVVC, 또는 V요소들로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어의 strand란 단어는 CCCVCC의 연결체를 형성한다.

물론 이같은 음절 구조는 제약이 있다. 이 제약은 하나의 음절 속에 올 수 있는 자음과 모음 및 전이음 종류와 연결시 이미 제약을 포함한다.

CV음운론은 음절의 정점(peak)과 비정점(non-peak)을 잘 구분해 준다는 점에서 그리고 앞서 제시한 onset, peak, coda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간결하다는 이점이 있다. 즉 V에 의해 지배를 받는 분절음은 음절정점으로, C에 의해 지배를 받는 분절음들은 음절 비정점으로 생각하면 되며, V는 핵, V의 앞 부분은 onset, V의 뒷 부분은 coda로 간주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앞에서 우리는 음절에 대한 이론적 측면을 음절 이론의 타당성에서 시작하여 음절 구조의 두 입장 및 최근 음절 음운론의 한 분야인 CV음운론의 관심사를 간략히 검토하였다. 이같은 음절 이론의 내용이 실제 발음 교육에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는 다음 절에서 언급하겠다.



## 2.4 발음 교육에의 활용

음절 음운론을 발음 교육에 활용해야 효과적이 된다는 점은 정국(1988)에 잘 나타나 있다. 정국(1988)에서는 한국인 학습자가 음절이란 단어를 잘 인식하지 못하여 영어의 자음군에 불필요한 '으'모음을 삽입한다고 함으로써 발음상의 문제점을 잘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본 장에서는 앞서 논한 음절 이론이 어떤 식으로 영어의 발음 교육에 활용돼야 바람직스러운지를 고찰해 보겠다.

### 2.4.1 음절 구조의 비교

음절 음운론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영어의 음절 구조의 문제는 발음 교육을 위해서 한국어의 음절 구조와 다시 비교 검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목표어인 영어의 음절 구조와 모국어인 한국어의 음절 구조가 서로 동일한지 또는 다른지 여부를 안다는 것은 학습자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음은 물론 발음 교육에도 좋은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sup>11)</sup>

한국어와 영어의 음절 유형에 대해서 양동휘는 다음과 같은 구조와 예를 제시하고 있다.<sup>1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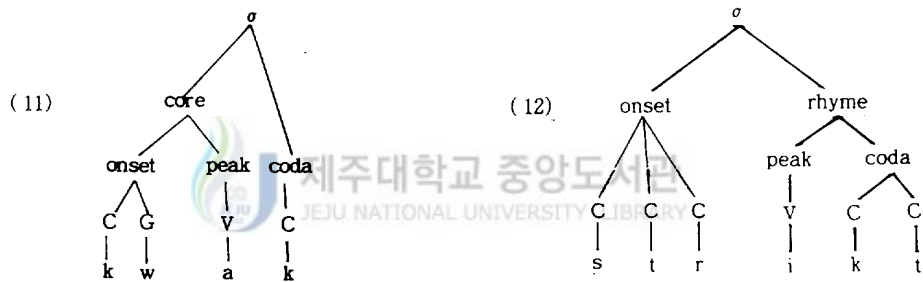
(10)	한국어	영어
V	이, 아, 어	a, I
CV	가, 서	see, she, bee
VC	인, 산	at, it, oar
CVC	길, 산	can, bus
CCV	교, 벽	throw, tree
CCVC	락, 병, 공	drum, black
VCC		art, earn, irk
CVCC		list, risk
VCCC		acts
CVCCC		midst, next sixth
CVCCCC		texts

11) 이 같은 사실은 Fries(1945: 16)가 음절 구조를 연결하는 요소들의 연결관계를 찾아내는 일이 영어 학습에 아주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데에서도 뒷받침된다.

12) 양동휘(1982: 206-207)가 고려한 음절 구조의 예 중에서 영어의 경우는 중등학교 영어 교재에 수록된 단어 중에 필자가 고른 것임.

CCVCC	stand, grant
CCVCCC	twelfth
CCVCCCC	twelfths
CCCV	spray, spree
CCVC	spread,

위 음절 유형은 자음과 모음의 연결체를 선형적으로만 배열한 구조이다. 그러나 음절을 선형적으로 구조화하는 것보다 계층적으로 조직화시키는 것이 음절 경계를 잘 인식하고 음절의 구성 요소에 따른 분절음 배열 제약을 잘 언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로서는 일단 음절을 계층적인 단위로 생각하고 교육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어의 ‘팍’과 영어의 strict를 앞에서 논의한 수형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위의 비교에서 한국어의 음절 구조는 단순한 반면에 영어의 음절 구조는 좀 복잡한 유형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한국어에서는 자음군이 음운 또는 철자상을 제외하고 음성상에서는 없다고 할 수 있는 반면에,<sup>13)</sup> 영어에서는 음운상 또는 음성상 복잡한 자음군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어에서는 ‘팍, 병, 공’이 보여주는 것처럼, 음절 구조가 모음 V를 중심으로

13) 위 도표(11)에서 G는 반모음이므로 정확히 자음이라고 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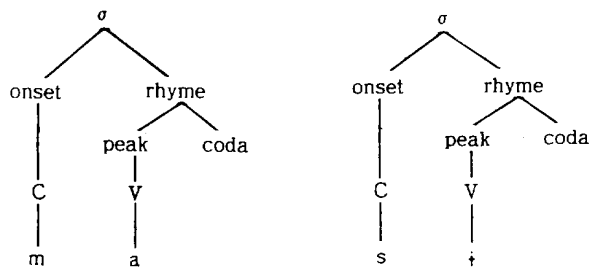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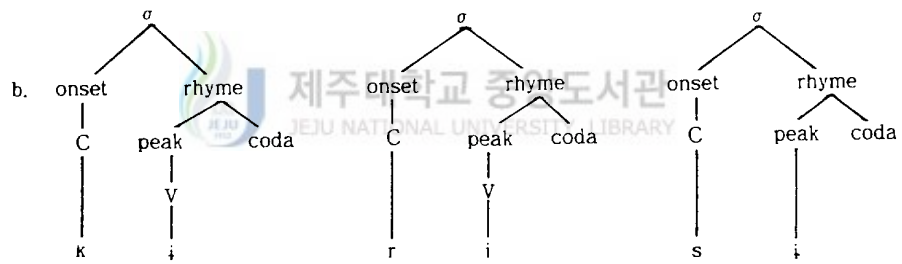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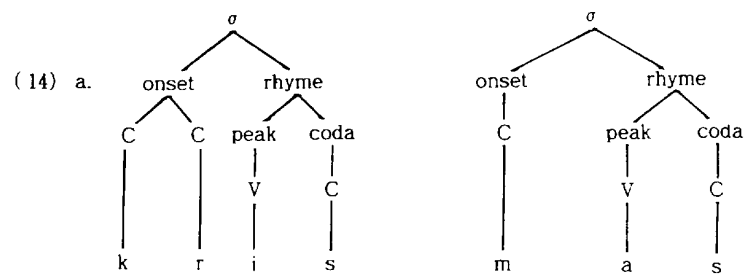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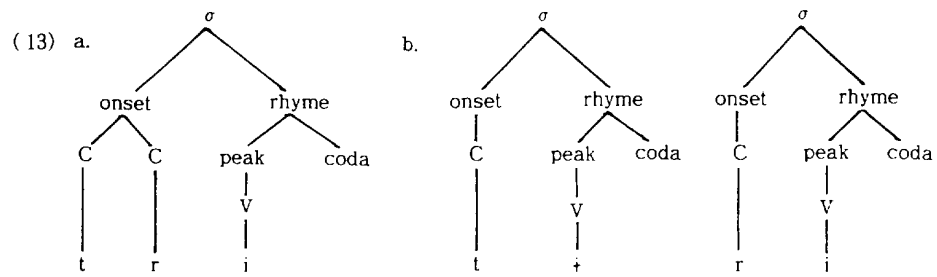
음절초에 자음 하나, 반모음 하나, 그리고 음절말에 자음 하나인 구조를 이루고 있다.

반면에 영어에서는 strict에서처럼 모음을 중심으로 음절초에 자음이 세 개까지 올 수 있고, tempts에서처럼 음절말에도 자음이 네 개까지 올 수 있다. CV음운론의 용어를 빌리면 한국어의 경우 최대 음절은 CGVC의 구조를 형성하며, 영어의 경우는 CCCVCCCC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물론 이같은 음절 구조가 계층적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다.

따라서 이같은 서로 다른 음절 구조 때문에 한국인 학습자들은 영어를 배울 때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영어 단어를 한국어의 음절 구조에 맞추어 다시 나름대로 발음하다 보니 불필요한 모음만 자음군 사이에 삽입되어 음절수가 증가함으로써 한국식 발음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사는 이 같은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교육 현장에서 좋은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2.4.2 문제점

사실 과거 몇년 전까지만 해도 영어의 음절 구조를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여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한국어의 음절 구조에 맞추어 잘못된 발음을 하는 학생들이 많았었다. 한국인 학습자들이 영어의 음절 구조인 CCCVCCCC를 무시하고 자음 뒤에 i (으)를 삽입하는 경우 등이다. 영어의 spring인 경우, 음절 개념을 잘못 인식했을 때는 우리말의 음절구조 형식에 맞추어 [sipirij]이란 3음절로 잘못 발음해 버린다. 그런데, 영어의 최대음절을 기반으로 살펴보았을 때는 이 단어는 분명히 1음절이다. 이러한 예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나타난다. 여기서 (13a)와 (14a)구조가 정확한 것이며, (13b)와 (14b)는 잘못 발음한 구조이다.



(13b)의 수형은 1음절로 발음되어야 할 영어 단어가 2음절로 발음되어 나타나고 있고 (14b)의 수형에서는 2음절로 발음되어야 할 것이 5음절로 잘못 발음하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손유원(1990)에서 잘 밝혀진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영어 단어를 계층적으로 나타냈을 때 그 문제점을 명확히 알 수 있다는 점만 첨가해 두겠다.

### 2.4.3 음절화 법칙

그러면 한국인 학습자들이 영어 단어를 배울 때 불필요한 모음을 삽입시키지 않고 제대로 영어다운 발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선 학습자들이 영어 단어를 보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음절 단위로 나눌 수 있도록 지도하느냐 하는 것과 같다.

정국(1988)도 음절에 관해, 학습자들에게 맨 먼저 가르쳐야 할 내용으로 음절 구분을 들고 있는데, 어떠한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가 음절 구조에 비추어 몇 음절인가를 알게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음절 구분을 정확히 하는 법칙을 현장에서 가르쳐야 할 이유는 음절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비단 단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의 발음과 밀접히 관련이 있으며, 특히 강세, 리듬, 억양 등의 초분절 요소가 모두 음절을 단위로 해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더구나 2음절인 Christmas란 단어의 발음에서 필요하지 않는 i(으) 모음이 들어가 아무리 분절음의 발음을 잘 하여도 5음절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점에서 음절을 나누는 방법이 그만큼 유의있게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다.

영어 단어를 음성적으로 음절화하는 원칙<sup>14)</sup>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음절화란 종래의 분절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를 발음할

---

14) 이에 대해서는 Kreidler (1989 : 85-86)을 참조

때 어디에 경계를 두어야 하고 어떻게 음절 단위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관한 것이다.

첫째, 두 모음이 연속적으로 나타날 경우 음절 경계(syllable break)는 모음과 모음 사이이다. 즉, 발음상에 모음이 연속으로 나타날 때, 그 사이에서 음절을 구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교재에 나오는 diary나 pronunciation 등은 di-a-ry, pro-nun-ci-a-tion으로 음절화된다.

둘째, 한 자음이 두 모음 사이에 있고 두번째 모음이 강(strong)모음이면 강세를 받건 받지 않건 그 자음은 두번째 음절에 오도록 음절화한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교재에 나오는 suppose, tomorrow, mathematics은 각각 su-ppose, to-mor-row, math-e-mat-tics로 음절화된다.

셋째, 하나의 자음이 강모음과 약모음 사이에 있다면 그 자음은 양음절적(ambisyllabic)이다. 양음절적이란 첫 음절의 말이기도 하고 둘째 음절의 시작이기도 한, 즉 한 음이 두 음절에 모두 속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valley나 rabbit, clever 등은 val-ley, rab-bit, clev-ver로 된다.

다만, 자음이 강모음과 약모음 사이에 있어도 자음 앞에 있는 모음이 이중 모음이나 장모음일 경우는 그 자음은 뒤의 모음쪽으로 음절화시킨다. 예를 들어 piper는 pi-per로 음절화된다.

넷째, 두 모음이 하나의 자음군에 의해 나뉘질 때 음절 경계는 그 자음군에서 자음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결정된다. 가령 음절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음군 형태는 sC-, Cr-, Cl-, Cw-, sCr-...등으로서 이들은 다음 모음이 강모음이면 그전체 자음군은 역시 분리시키지 않고 강모음이 있는 음절 쪽으로 하나의 음절을 만든다. 예를 들어 surprise는 sur-prise로 음절이 나누어진다.

다섯째, Selkirk(1982), Clements & Keyser(1983) 등이 주장하는 음절초 자음군 우선원칙(onset first principle)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둘 이상의 자음군이 존재할 경우 영어의 분절음 배열상 허용하는 데까지 음절초에 포함시키고 상대적으로 음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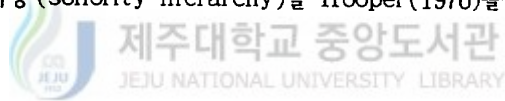
말은 가능한 짧게 하는 음절화 원칙이다. 예를 들어 contrast, actress, abstract 등은 con-trast, ac-tress, ab-stract로 음절화된다.

한편 음절화 원칙은 강세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영어의 음절 구조에서 rhyme이 VV이거나 VC인 중음절에는 강세가 주어지는 대신에 V인 경음절에는 강세가 할당되지 않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Daytona와 about의 경우 전자는 rhyme이 VV이므로 /dey/에 강세가 할당되지만 후자의 /ə/는 분지되지 않는 구조이므로 강세가 배당되지 않는다.

음절과 강세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언급할 기회를 갖겠다.

#### 2.4.4 음절성 자음

영어는 음절 구조에서 모음이 음절핵을 이룬다는 것은 이미 지적한 바 있지만 자음 중에서도 공명도가 커서 모음성을 띤 자음이 있다. 비음이나 유음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정확한 음절 구분을 위해서는 이같은 자음도 하나의 음절을 이룬다는 점에서 지도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를 어떻게 지도해야 좋은지를 알아 보기 위해 자음과 모음의 공명도 계층(sonority hierarchy)을 Hooper(1976)를 따라 다음과 같이 나타내기로 한다.



#### (15) sonority hierach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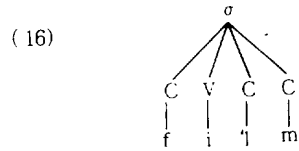
least	sonority
1	voiceless obstruents(p, t, k)
2	voiced obstruents(b, d, g)
3	nasals(m, n, ŋ)
4	liquids(l, r)
5	glides(w, y)
6	vowels(a, e, o, ...)
greatest	sonority



밑으로 내려올수록 공명도가 커서 음절을 이룰 수 있는 요소이며 적어도 공명도가 3이나 4인 비음이나 유음도 음절을 이룰 수 있다.

그런데 음절을 이루는 현상을 보면 영어의 단어는 공명도가 작은 자음에서 시작하여 음절핵에 이르면 공명도가 가장 크고 다시 음절말로 갈수록 공명도가 작은 음이 위치함을 이해할 수 있다. 예컨대 print란 단어를 보면 1-4-6-3-1로서 이 사실을 뒷받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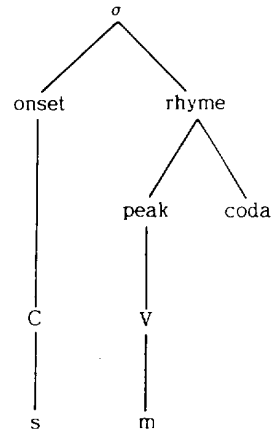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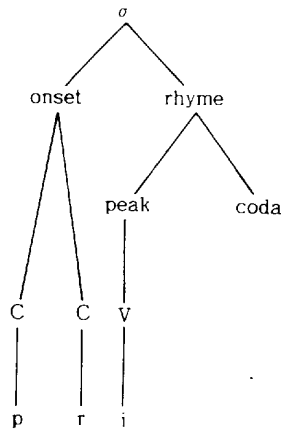
따라서 이경우 발음 지도시 중요한 것은 위와 같은 원칙에 벗어났을 때 아무리 비음이나 유음이라 하더라도 음절적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film을 보자. 이를 알기 쉽게 CV음운론의 구조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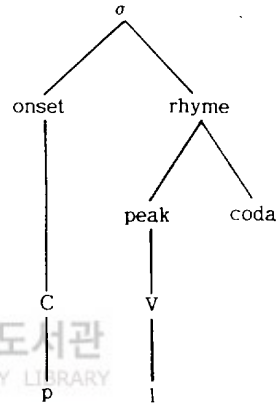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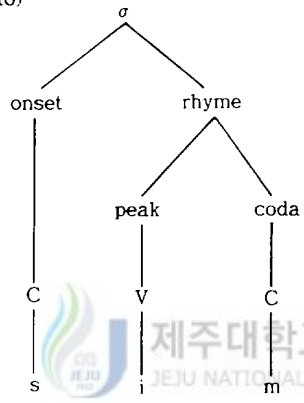
여기서 /m/이 음절적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앞에 나오는 유음 /l/이 /m/보다 공명도가 더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film은 분명히 1음절을 가진 단어로 훈련시켜야 한다.

이와는 달리 prism이나 simple, turtle 등의 비음이나 유음은 이같은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각각 2음절로 가르쳐야 할 것이다. 이를 계층적 수형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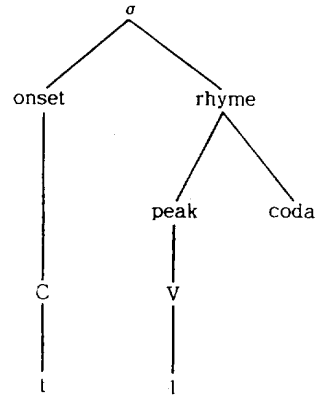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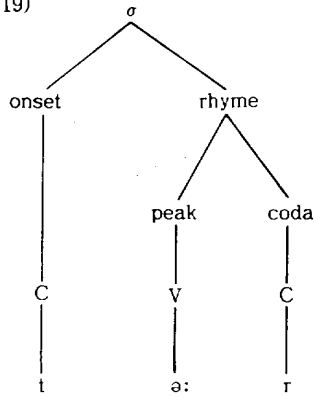
(17)



(18)



(19)



지금까지 음절 이론을 발음 교육에 활용하려는 시도를 해 왔는데,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의 의무는 음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습득하여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학습 지도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음절의 이론적 개념을 활용하기란 쉽지 않다.

필자가 교육 현장에서 활용해 온 바로는 영어의 최대 음절 구조를 이용한 발음 지도는 효과적이어서 영어를 한국어의 음절 구조에 맞추어 발음하는 습관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었다. 그런데 모음성을 띤 자음의 지도에 있어서 접하기 어려운 공명도 조건 등을 내세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데, 이 경우는 모음성을 띤 자음의 음절 형성 여부를, 순수 자음 <n, m, ŋ, l, r> (모음의 형태로 기본적 공명도 등급을 표시하여 지도하면 편리하다.





- (20) a.  $\{_{N\#} \{_{A\#} \text{green}\# \}_A \{_{N\#} \text{house}\# \}_N \# \}_N$   
 b.  $\{_{NP\#} \{_{A\#} \text{green}\# \}_N \{_{N\#} \text{house}\# \}_N \# \}_{NP}$

이 구조에서 사각괄호가 차츰 벗겨지면서 greenhouse와 green house의 강세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강세 규칙 등이 적용되어야 한다.

- (21) a. 단어 강세 규칙(word stress rule): 어휘목록 중 내용에 강세를 부여하는 규칙으로 모음에 제1강세가 온다.  
 b. 복합어 강세 규칙(compound stress rule): 복합어에서 강세를 가진 단어가 둘 이상 있을 때 가장 왼쪽에 있는 제1강세를 가진 단어에 제1강세가 부여된다.  
 c. 중핵어 강세 규칙(nuclear stress rule): 한 명사구 안에 제1강세를 가진 단어가 둘 이상 있을 때 가장 오른쪽에 있는 제1강세를 가진 단어에 제1강세가 배당된다.  
 d. 강세 조정 규칙(stress adjustment rule): 어떤 위치에 제1강세가 주어지면 분석 중인 연결체의 다른 모든 강세들은 자동적으로 하나씩 내려간다.

생성 음운론의 변형순환의 원리에 따라 위(20 a. b)의 구조에서 (21)의 여러 규칙을 적용시켜 어떻게 강세가 유도되는지를 말하면, 먼저  $\{_{N\#} \{_{A\#} \text{green}\# \}_A \{_{N\#} \text{house}\# \}_N \# \}_N$ 에 규칙(21a)을 적용시키면  $\{_{A\#} \text{gr}^1\text{een}\# \}_A \{_{N\#} \text{h}^1\text{ouse}\# \}_N$ 가 되며 이어 (21b)를 적용시키면 괄호가 벗겨지면서  $\{ \text{gr}^1\text{een} \text{ h}^2\text{ouse} \}$ 로 변하고, 다시 (21d)를 적용시키면 우리의 눈으로 접할 수 있는  $\text{gr}^1\text{een} \text{ h}^3\text{ouse}$ 가 도출된다.

한편, green house는 규칙(21a)을 적용시켜 먼저  $\{ \{ \text{gr}^1\text{een} \}_A \{ \text{h}^1\text{ouse} \}_N \# \}_{NP}$ 를 얻

게 된다. 여기서 괄호를 지워버리면 [green<sup>1</sup> house<sup>1</sup>]<sub>NP</sub> 만이 남게 되는데, 이것이 두 번째 순환 규칙이 적용되기 위한 형태가 된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 (21c)를 적용시키면 green<sup>2</sup> house<sup>1</sup>가 파생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강세의 차도를 숫자로 표시하는 Chomsky & Halle(1968)의 *The Sound Pattern of English*(이하 SPE라 약함)식 강세 설명 방법은 괄호 매김이나 규칙 순환의 적용에 따라 강세가 배당되므로 도출과정이 너무 복잡하다는 문제점이 따른다. 이같은 복잡성은 문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많은 강세 단계를 숫자로 표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sup>16)</sup> 게다가 단계적 표시의 강세 자질은 다른 자질과는 달리 양분적이지 아니라는 점에서 그들로서는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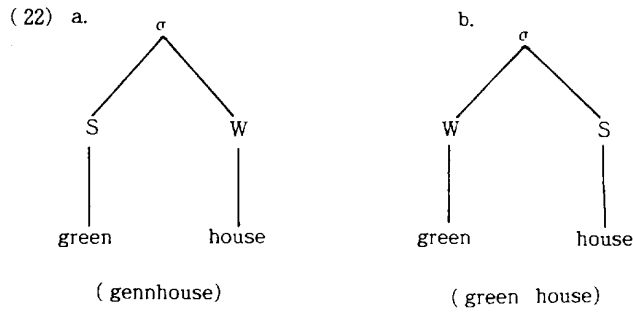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Liberman & Prince(1977)는 SPE식 강세 분석과는 달리 강세를 계층적 운율 구조 속에서 강·약의 상대적 자질을 가진 단위로 규정하고 있다. 바로 이같은 구성 요소의 상대적 강도를 중시하는 관점이 운율 음운론의 주요한 입장이다.

이것은 발화에 내포된 탁립관계(prominence relation)는 강(strong)과 약(weak)으로 표시되는 계층 구조에 의해 특징화될 수 있으며, 계층 구조 안의 교점은 다원적이지 아닌 양분 체계로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 S라는 교점은 W라는 교점보다 더 강하거나 우세하다는 뜻이며, W로 표시되면 다른 요소보다 더 약하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면 green<sup>1</sup>house<sup>3</sup>와 green<sup>2</sup>house<sup>1</sup>의 강세를 Liberman & Prince(1977)<sup>17)</sup>식의 수형도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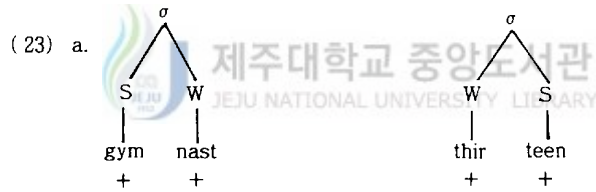
16) Chomsky & Halle(1968 : 23)에서는 8차 강세까지 내려가고 있으나 Hogg & McCully (1987 : 64)에서는 16차 강세, 심지어 29차 강세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한다.

17) 이하 본고에서는 Liberman & Prince (1977)를 약해서 LP로 표기하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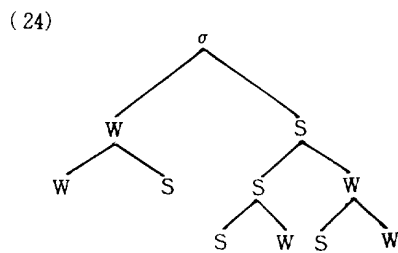


위 수형은 숫자 부여를 하여 강세를 설명하는 방법보다 강세의 강약 관계를 고려하여 설명해 주고 있다. 즉, 어느 한 쪽이 다른 쪽과 비교하여 강인지 또는 약인지를 명확히 수형으로 나타냄으로써 상대적 탁립 관계를 잘 포착하고 있다.

더욱이 LP에서는 [± stress]란 자질을 도입하여 강약의 세부적인 차이까지도 명시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예를 들어 gymnast와 thirteen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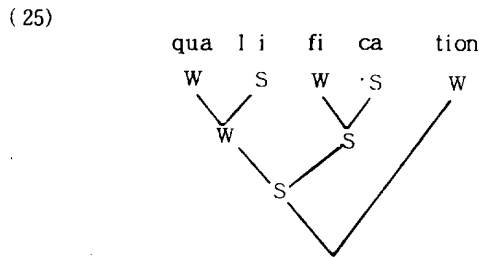


특히 이같은 LP의 강세 설명 방법은 강세 구조를 넘어 음절 구조와도 연관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24)의 수형에서 음절을 이루는 S와 W중 S를 계속 타고 내려온 교점이 다른 부분보다 공명도가 커서 강세가 배당된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음절 구조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다.

이 관계를 qualification이란 단어에 적용시켜 보자.



위 수형에서 S교점만 계속 찾아 나가면 -ca-에 이르게 되는데 바로 그 구성 요소에 강세가 할당되고 있다.

따라서 구성 요소 간의 강약을 고려하여 강세를 다루는 LP식 운율 이론이 SPE식 숫자 부여 강세 이론보다 더 간결하여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3.2 음 보

운율 구조의 세부적 차이를 더 잘 나타내고 강세를 자연스럽게 기술하기 위해서는 음절보다는 크고 음운 단어보다는 작은 단위인 음보(foot)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있다. 운율 수형에서 음절이 그보다 상위 단위인 음보로 구조화되는 것이 영어 단어의 강세를 더 자연스럽게 설명해 준다는 것이다.

사실 LP에서는,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운율 구조의 세부적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



서〔± stress〕란 자질을 설정한 바 있다. 그러나〔± stress〕란 자질은 순전히 운율 정보가 될 수 없는 것으로 운율 구조의 차이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순수하게 운율 수형 내부에서 운율 정보가 명시돼야 바람직하다. 바로 이같은 관점에서 순수한 음운 단위인 음보의 도입이 필요해지는 것이다.

그러면 음보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영어가 강세 박자 언어(stress timed language)란 점을 말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 알다시피, 영어는 리듬 언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리듬은 일정한 수의 음이 반복됨으로써 형성된다. 음악이나 시에서 흔히 강·약이나 약·강격의 유형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같은 구조가 리듬의 기초를 이룬다.

리듬의 구성 요소는 물론 단어의 음절에서 출발하는데, 음절에는 강세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어서 강·약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음절이 들 내지 셋이 모여서 리듬의 기본 요소인 음보 단위를 형성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음보는 등시간격성(isochronous)이 유지되는 하나의 기본 박자로서, 영시에서만 아니라 발화시에도 중요한 단위로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Abercrombie (1965 : 28)도 이러한 사실에 기반을 두어 영어의 문장을 등시간격성에 의해 고른 길이의 음보로 나누어진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음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English utterances may be considered as being divided by the isochronous beat of the stress pulse into feet of (approximately) even length. Each foot starts with a stress and contains everything that follows that stress up to, but not including, the next stress.<sup>18)</sup>

그러므로 이런 입장에 근거해서 보면 음보는 강세를 받는 것으로 시작해서 다음

18) D. Abercrombie, *Studies in Phonetics and Linguistics* (London : Oxford University Press, 1965), p. 28.

강세를 받기 전까지의 모든 것을 포함하며, 실용적인 의미로 말한다면 강세 음절 (stressed syllable) 1개, 비강세 음절 (unstressed syllable) 1-2개 정도로 구성되 어진다고 할 수 있다. consideration이란 단어는 5음절어이지만 음보단위로는 2개로 되어 있다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에는 음보의 개념을 문장 속에서 파악해 보자. "That is the book that Jim wants." 문장은 네 음보로 이루어져 있다. 이 관계를 강세 음절의 등시간격을 고려한 음보 단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6) /That is the/book that/Jim/wants/.

(26)에서 주의할 것은 각 음보의 음절 단위의 수는 일정치 않지만 발음할 때는 같은 박자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각 음보는 같은 길이이므로, 각각 한 음보씩을 이루는 Jim이나 wants가 비록 that is the나 book that의 음보내의 음절 수보다 적지만 거의 같은 간격으로 발음된다. 이 문장을 Couper-Kuhlen(1986 : 56)의 음보 경계 표시로 나타내면 음보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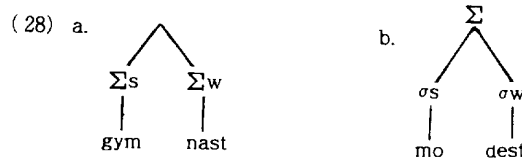
(27) /That is the/book that /Jim /wants /

(27)에서 알 수 있듯이 음보의 등시간격성은 단음절 음보가 2음절 또는 그 이상의 음절로 구성된 음보 단위와 같은 시간내에 발화할 수 있는 같은 길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인식할 때, 음보는 강세가 나타나는 음운 구성 요소로서, 음운적 등시간격성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단위로 음운 박자의 단위가 된다고 할 수 있다.<sup>19)</sup>

이러한 개념의 음보란 단위를 이용하여 강세를 설명한 대표적 학자로는 Selkirk

19) 김순택, 영어운율범주의 계층적 조직,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1, p. 52.

(1980)을 들 수 있다. Selkirk(1980)은 이전처럼 [± stress]자질을 사용하여 강세를 설명하지 않고 순수한 운율 단위나 정보가 되는 음보를 이용하여 강세를 간결히 기술한다. 예를 들어 gymnast와 modest의 강세 표시는 다음과 같은 운율 구조로 형성된다.



위 수형에서  $\Sigma$ 가 음보를 나타내는 기호로 이 음보 단위가 직접 운율 수형에 표시됨으로써 종래의 [± stress]란 자질은 불필요해지게 된다. 특히 위 수형에서 (28a)의 -nast는 제3강세를 받아 어느 정도 강세적 자질이 있으므로 별도의 음보를 이룰 수 있으나(28b)의 -dest는 강세적 자질이 없기 때문에 한 음보가 되지 못하여 다른 음보 내에 약음절로만 역할하고 있다.

### 3.3 운율 격자



LP는 강세 현상을 일반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앞에서 논의한 강·약의 수형도, 즉 나무 구조를 도입한 한편, 강세와 관련한 리듬 구조를 나타내기 위해서 격자이론(grid theory)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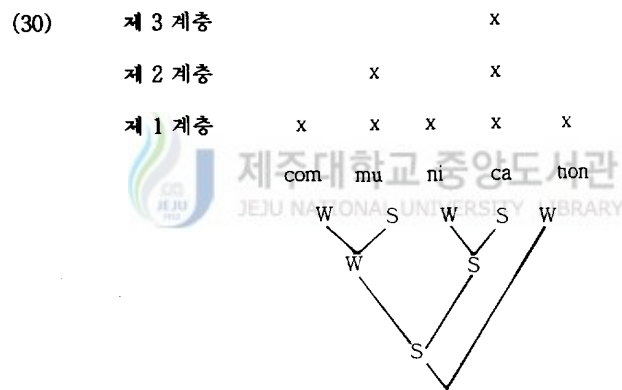
격자는 음절을 기본으로 그보다 상위계층인 음보, 음운단어 등으로 계층화되어 있는 구조에 석쇠 표시인 X를 이용하여 상대적 강도를 끝까지 유지시켜 운율적으로 강인 요소에 계속 X를 부여하는 것이다. LP가 격자 이론을 옹호하는 이유는, 격자가 약강 전환을 형성하는 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음절 탁립에 관한 모국어 화자들의

직관을 보다 정확히 포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communication이란 단어를 격자 구조로 나타내 보자. 여기에서 1층의 X는 음절을, 2층의 것은 음보를, 3층은 음운단어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층적으로 끝까지 강한 요소에 X가 부여되고 있다.

(29)	제 3 계층									x
	제 2 계층								x	x
	제 1 계층	x	x	x	x	x	x	x	x	x
		com	mu	ni	ca	tion				

따라서 위(29)의 격자 구조는 음절들 간의 상대적 강도를 알기 쉽게 보여준다. 이같은 입장을 강과 약의 양분 자질과 관련시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 그림에서 강세를 설명한다면 음운 단어층에 가장 높이 올라간 부분에 할당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강약의 구조에서 S교점만을 타고 내려온 부분에 강세가 배당된다고 말할 수 있었던바, 운율 격자를 이용해서도 이런 사실을 잘 포착할 수 있다.

한편 LP는 영어의 유명한 리듬규칙(rhythm rule)<sup>20)</sup>을 설명하기 위해 인접

20) 이를 다른 말로 thirteen men rule이라고 한다.

(adjacent), 교체(alternating), 충돌(clashing)이란 용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Terms like *adjacent*, *alternating*, *clashing*, etc. can now be defined in a way that makes sense of intuitions about the role of the Rhythm Rule. Elements are metrically adjacent if they are on the same level and no other elements of that level intervene between them ; adjacent elements are metrically alternating if, in the next lower level, the elements corresponding to them (if any)are not adjacent; adjacent elements are metrically clashing if their counterparts one level down are adjacent.<sup>21)</sup>

즉, 격자 요소들이 같은 층에 있고 그들 사이에 어떤 다른 요소들이 끼어들지 않으면 운율적으로 인접되며 그 다음 아래 층에서 그들 요소와 대응하는 요소들이 인접되어 있지 않으면 운율적으로 교체가 되며, 한 계층 아래의 그들의 상대가 인접된다면 윗격적으로 충돌을 일으킨다고 한다.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의 예를 보자.



(31)	제 3 계층			x
	제 2 계층		x	x
	제 1 계층	x	x	x
		thir	teen	men

위 (31)의 제2계층의 격자들은 그들 사이에 어떤 다른 요소들이 끼어 있지 않으므

---

21) M. Liberman & A. Prince, "On stress and linguistic rhythm," *Linguistic Inquiry* 8, 1977, p.314.

로 인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제2계층의 격자들은 제1계층의 상대가 인접하기 때문에 충돌 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경우 강세 충돌을 막기 위하여 강세를 조정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31)은 격자들이 교체되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전환되는 것이다.

(32)	제 3 계층			x
	제 2 계층		x	x
	제 3 계층	x	x	x
		thir	teen	men

이같은 설명은 fatigue party나 antique chair 등의 구조를 보아도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단어들의 격자들은 그 중간에 어떤 다른 요소들이 끼어들고 있지 않으므로 충돌을 일으키바, 이를 조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도표로 나타내면 각각 (33), (34)와 같다.

(33) a.	제 3 계층			x			b.		x
	제 2 계층			x	x			x	x
	제 1 계층	x	x	x	x			x	x
		fa tigue party						fa tigue party	
(34) a.	제 3 계층			x			b.		x
	제 2 계층			x	x			x	x
	제 1 계층	x	x	x				x	x
		antique chair						antique chair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위에서 다룬 예들은 강세 조정을 해야 하지

만 important news나 unnatural image인 경우는 important news나 unnatural image로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im- 이나 un- 같은 접두어는 강세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 3.4 발음 교육에의 활용

그렇다면 앞에서 논한 운율 음운론의 이론적인 면을 실제 발음 교육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까? 음보와 리듬과의 관계, 그리고 음절과 강세 등의 면에서 운율 음운론을 현장에 이용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 3.4.1 음보인식

3장 2절에서 음보의 일반적 개념에 대해 알아본 바와 같이 음보는 강세 음절과 비강세 음절의 연결로서 리듬적(rhythmical)이다. 이러한 음보는 강(strong)·약(weak) 또는 약강, 강약약, 약약강 등으로 이루어진다.

음보 개념의 이해를 위해서 고등학교 교재에 실린 영시와 접하기 쉬운 운율 몇 구문을 참고해 가면서 습득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운율 음보의 구조는 영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35) /My heart/leaps up/when I behold/  
/A rain/bow in the sky/

(William Wordsworth; My Heart Leaps Up)

(36) /Art is/long and/time is/fleeting/

(Longfellow; A Psalm of Life)

(37) /To be/or not/to be/, that is the/question/

(Shakespeare; Hamlet의 제3독백 중에서)

영시를 통한 음보의 습득은 평이한 영어 문장에서도 자연스럽게 적용되어 끊어 읽기나 듣기(listening)의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우선, 다음의 영어 단어 pronunciation과 Englishwoman을 몇 박자로 발음해야 할지 음보의 개념을 도입하여 설명해 보자. 이것을 격자 표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38)

$$\begin{array}{c} x \quad x \\ x \quad x \quad xx \quad x \\ \text{pronunciation} \end{array}$$

(39)

$$\begin{array}{c} x \quad \quad x \\ x \quad x \quad x \quad x \\ \text{Englishwoman} \end{array}$$

(38)의 pronunciation은 5음절어이지만 2층의 음보 격자 표시에 의해 '●+●'식으로 두 박자로 발음된다. (39)의 Englishwoman인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4음절어이지만 강·약의 음보 구성 요소에 의해 역시 2박자로 발음된다.

이러한 음보의 도입은 영어 학습에서 종래의 문장 끊어 읽기에서 사용했던 구문론적인 방법을 벗어나 운율 음운론의 입장에서 직관적으로 발화하는 데도 자연스럽게 경계를 두고 읽을 수 있게 한다.

고등학교 교재에 나오는 다음의 문장을 음보를 이용하여 끊어 읽기 연습에 활용해 보자.

$$x \quad x \quad / \quad x \quad x \quad \quad / \quad x \quad \quad x \quad x \quad x \quad /$$
 (40) /Do you mean/I have to prac/tice what I have learned?/

(40)의 문장은 길게 되어 있어서 여러 번 끊어 읽어야 될 것 같지만 음보 개념을 이



용하여 적용한다면 세 박자로 발음해야 올바를 것이다. 다음의 문장들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 음악에서 사용하는 음표 '♩'를 이용하여 나타내 보겠다.

x x x / x x / x

(41) /I used to swim/in this river./

♩ + ♩

(42)            1                    2                    3                    4                    5

x /    x x /    x x x /    x /    /

/she knows/that he lay/most of the night/with eyes/open./

♩ + ♩ + ♩ + ♩ + ♩

(42)의 문장에서 3이 가장 많은 음절로 이루어진 음보이며 5가 가장 적은 음절로 이루어진 음보이다. 그런데 음보의 등시간격성에 의한다면, 3이나 5는 같은 박자(길이)로 읽어야 한다.

이러한 식의 음보 인식은 학생들에게 직관적인 사고 능력을 길러주어 전통적 구문론에 의존한 복잡한 구조 분석 방법을 벗어나 자연스러운 발화를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의미에서 교육적으로 큰 효과를 가져오리라 본다.

### 3.4.2 리듬 이해

앞에서 언급했듯이 영어는 강세 박자 언어로서 리듬을 가진 언어이다. 강세 박자 언어는 발화 중에 강·약이 번갈아 나타나 발음하기에 용이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 강세 박자 언어가 리듬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것은 Prator & Robinett(1972 : 26)에 잘 나타나 있다.

영어의 리듬은 대체로 다음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일치된 견해이다. 즉, 영어는 거의 다 무거운 요소(강세)와 가벼운 요소(비강세)가 서로 교차하

여 나타난다. 따라서 유사한 무게를 가진 요소들의 인접 반복은 최대한으로 피하여 나타난다.<sup>22)</sup>

이러한 리듬 원칙이 영어에서 지켜진다는 점은 다음의 문장에서 강세 리듬의 조화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43) w s w s

I am a student.

위의 경우 강세 음절이나 약세 음절이 두 번 반복되고 있지 않고, 약·강, 약·강의 구조로 문장을 이루고 있다. 물론 이것은 내용어 사이에 기능어가 끼어들어 강세 음절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어에서는 강·약 또는 약·강의 조화를 이루어 발음하기에 용이하도록 리듬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영어의 이런 리듬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접미사도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접미사가 리듬을 맞추기 위해 일종의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접미사가 붙은 다음의 영어 구를 운율 음운론의 표기 방법으로 고쳐보면 이같은 점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s w s w

(44) funny party

w s w s

(45) my wedded wife

위 (44)와 (45)의 구조에서는 접미사-y나 -ed 때문에 유사한 무게의 강세를 피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여기에 만약 접미사가 개입되지 않으면 발음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게 되지만 접미사가 끼어듬으로써 발음상 편리하게 된다. 그러므로 영어의 발음을 가르칠 때는 유사한 무게를 가진 것끼리의 인접 반복은 최대한으로 줄이

22) 박남식, “무게와 리듬—영어를 중심으로,” 「언어」 제10호, (충남대학교 어학연구소, 1989), p. 131.

는 입장에서 강세가 조정되고 있음을 명시해 주어야 한다.

library에 접미사가 붙어 librarian으로 될 때의 강세가 첫 음절에서 두번째 음절로 바뀌는데, 이것도 강약의 리듬 원칙을 지키려 하기 때문이다. librarian의 강세가 첫 음절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면 강약약강의 구조가 되어 보다 부자연스럽게 될 수 있다.

이 사실은 앞서 논한 운율 음운론의 격자 구조를 이용해 나타내 보아도 마찬가지 결과를 얻는다.

/ x xx	x / xx
(46) librarian	librarian

결국 앞에서 다루었던 운율 음운론의 격자 이론에서 특히 충돌 현상을 막기 위해 강세가 조정된다는 점은 영어 리듬 구조의 부자연성을 막는 것으로서의 강세 조정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런 점에서 origin이 original로 될 때 강세가 첫 음절에서 두번째 음절로 바뀌는 경우도 결국은 다 마찬가지 현상이라 설명하면 되겠다. 즉, 같은 강세가 반복되는 것을 피한다는 것은 곧바로 리듬 구조를 자연스럽게 한다는 뜻이므로 운율 음운론의 이론은 얼마든지 교육 현장에 적용시킬 수 있는 분야이다.

이와 관련하여 영어의 리듬 현상을 잘 설명하는 박남식(1989)의 글은 교육 현장에서 시사점이 있다고 본다. 가령 박남식(1989 : 136)은 영어의 리듬은 약세군(weak cluster)을 될수록 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약세군에 대한 저항의 근거를 어형성(word formation) 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접미사 -ery와 -ry를 보자.

- (47) a. fish+ -ery = fishery  
 b. cook+ -ery = cookery  
 c. weapon+ -ry = weaponry  
 d. peasant+ -ry = peasantry

박남식(1989)이 밝히는 바처럼, -ry는 -ery의 축약형인데, 전자는 2음절 어간과 쓰이고 후자는 단음절 어간과 쓰인다. 그런데 만약 2음절 어간에 -ery를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되면 약세 음절이 셋씩이나 인접 반복하는 결과가 되어 리듬 원칙을 위반하는 약세군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2음절 어간 다음에 -ery가 -ry로 축약되는 것은 약세군을 가급적 피하려는 영어의 리듬 현상 때문이라 설명하면 되겠다.

### 3.4.3 강세와 음절의 관계

제 2장에서 필자는 강세를 분석할 때는 분절음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것보다 음절을 단위로 하여 기술하는 것이 더 간결하다는 것을 기술한 바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영어 교육 현장에서 강세의 지도는 음절과 강세를 서로 관련시켜 영어의 단어가 주어지면 그 단어의 어느 음절에 강세가 있는지를 막연히 가르치는 방법을 택해 왔다. 그러나 그같은 방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새로운 영어 단어가 있을 때 과연 그 단어의 강세가 어디에 있는지를 학습자로서는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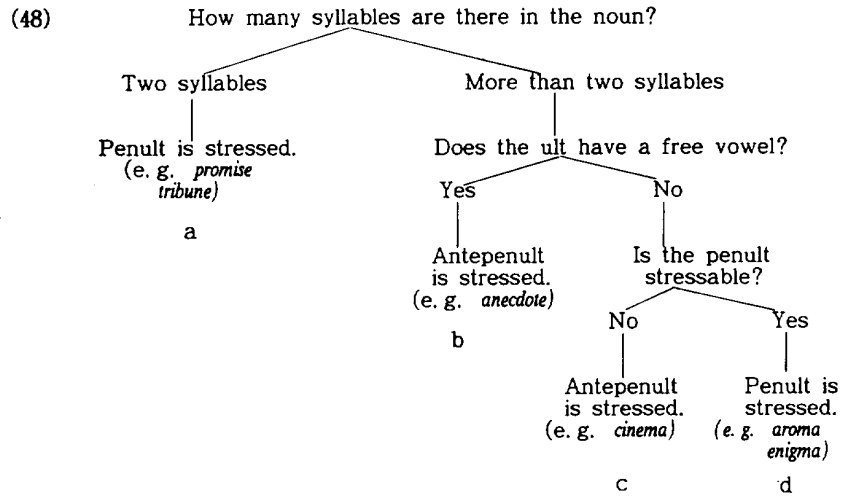
최근 음운론에서 음절과 강세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이같은 문제가 극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 음절을 구분하는 원칙과 강세와의 관련성을 기반으로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세 지도 방법으로는 어떠한 것이 제시될 수 있을까? 영어의 명사들이 어떤 강세 유형으로 규칙화될 수 있는지를 보기로 하자.

우선 주어진 영어의 명사가 몇 음절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것은 이미 음절을 구분하는 원칙이 설정되었으므로 그 원칙에 따라서 음절을 이해하면 된다. 만약 그 명사가 2음절(penult) 단어라면 강세는 일반적으로 끝에서 둘째 음절에 위치하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어 promise, focus 등은 바로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명사가 2음절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 보자. 즉, 마지막 음절(ultima)이 자유모음(free vowel)을 가지고 있는가? 물론 여기에서 자유모음이라고 하면 종래의 이중모음 또는 장모음을 의미한다고 보면 된다.

만약 자유모음을 가지고 있다면, 강세는 끝에서 셋째 음절에 위치한다고 설명하면 된다. 예컨대, appetite, microphone 등은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마지막 음절이 자유모음이 아니면 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 본다. 둘째 음절이 자유모음이거나 또는 자음 하나로 끝나는가? 그렇다면 aroma, explosion처럼 바로 끝에서 둘째 음절에 강세가 위치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camera, citizen처럼 끝에서 셋째 음절에 강세가 할당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같은 강세 설명은 음절 이론을 수용하지 않았던 종래의 현장 영어 교육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음절 이론을 강세 이론과 밀접히 관련시킴으로써 한결 간단하게 강세를 설명하는 이점을 얻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Kreidler(1989 : 203)를 따라 계층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 기본 명사 규칙을 얻을 수 있다.



이 같은 규칙을 받는 고등학교(1,2학년) 교재의 영어 단어들을 위의 (48) 수형의 a,b,c,d로 표시된 유형에 따라 분류시키면 다음과 같다.

- |                  |              |            |                |
|------------------|--------------|------------|----------------|
| (49) a. membrane | b. institute | c. camera  | d. horizon     |
| statue           | riverside    | citizen    | memorandum     |
| focus            | microphone   | instrument | appendix       |
| ticket           | contryside   | complement | correspondence |

## 4. 결 론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는 영어의 음절 음운론과 운율 음운론의 기본 내용, 형식, 방법론 등의 이론적 측면을 어떻게 하면 실제 영어 교육 현장에서 발음 교육에 활용시킬 것인가를 고찰하였다. 음절과 효과적인 발음 교육을 위해 어떤 식으로 적용하면 좋은지를 음운론의 두 가지 흐름, 즉 음절 음운론과 운율 음운론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고려해 보았다.

영어의 음운 기술에서 분절음보다 음절을 단위로 삼아야 타당한 이유는 앞서 논하였듯이 세 가지로서, 첫째, 영어의 분절음 연결 제약은 일반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영어의 음절 구조를 언급해야 하기 때문이며, 둘째, 영어의 분절 음운론의 여러 현상을 간결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음절이 영어의 음운 규칙의 환경 속에 내포되어야 함은 물론, 셋째, 영어의 강세 현상은 음절을 단위로 다시 분석되어야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처럼 음운 기술의 기본 단위로 채택된 음절은 선형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기보다는 그 자체에 내부 구조를 가진 계층적 조직으로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음절이 분절음의 단순한 나열로 형성되어 있다기보다는 그것을 구성하는 각 요소가 계층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고 할 때 분절음 배열 제약이라든가 영어의 음운 현상을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음절을 계층적인 단위로 인식한 것은 Kahn(1976)에서 비롯되고 있으나, Clements & Keyser(1983)에 이르러 음절에 관한 이론은 많은 발전을 하고 있다. 즉, Kahn(1976)의 음절 구조는 음절층과 분절음층의 두 층을 인정한 데 비해, Clements & Keyser(1983)는 그 두 층사이에 CV층을 설정함으로써 3층적 음절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음절 음운론의 이론적 측면을 무엇보다도 발음 교육에 충분히 활용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필자의 첫번째 입장이다. 음절 음운론의 연구에서도 본절음 단위보다 음절이 더 타당한 단위로 받아들여지고 있듯이 발음 교육에서도 본절음의 발음보다 음절이란 단위의 발음에 더 큰 중요성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음절이란 단위가 매우 중요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나 영어를 배우는 한국인 학습자는 이 개념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원래 2음절로 가르치거나 발음해야 할 Christmas란 단어는 한국어식으로 중간에 “으”모음을 삽입하여 5음절로 인식되는 잘못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사로서는 우선 한국어와 영어의 음절 구조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이해해야 한다. 한국어의 최대 음절 구조가 음성상에서 CGVC인 반면 영어의 최대 음절 구조는 CCCVCCCC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다음으로 불필요한 모음의 삽입을 지도하기 위해서 중전의 음성적인 지도와 병행하여 앞서 제시한 음절화 법칙을 잘 이용해야 한다. 음절화 법칙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문장의 강세와 리듬, 억양 등의 요소도 다 음절을 기본으로 해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편 과거의 강세 접근 방법과는 달리 강세 연구를 새롭게 한 음절 음운론의 기본 내용과 체계도 발음 교육에 중요하게 활용할 수 있다. 강세에 대해서는 표준 생성 음운론으로 대표되는 Chomsky & Halle(1968)에서 많이 연구된 바 있으나 그들의 접근 방법은 강세를 하나의 자질로 인식하고 변형 순환의 원리와 여러 표기 규약 및 규칙 순서를 정하여 복잡하게 기술한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다. 더욱이 표준 생성 음운론에서는 다른 음운 자질은 모두 양분적이지만 유독 강세 자질에 대해서만 숫자 부여식 단계의 자질을 설정하였는 바 그 점에 대해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는 문제가 뒤따르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Liberman & Prince(1977)의 운율 음운론에서는 강세를 강(s)과 약(w)의 양분적 체계로 수형도로 간결히 설명하고 있다. 물



론 강과 약의 개념은 한쪽이 다른 쪽과 비교하여 더 강하거나 약하다는 상대적 의미이다.

또한 운율 음운론에서는 음절보다 상위 계층인 음보란 단위를 설정하여 강세 유형을 더욱 바람직하게 설명하고 있다. 음보란 강세 음절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비강세 음절이 하나 또는 두 개 정도 따라오는 것으로 이해하면 무방하다.

물론 영어의 단어는 강과 약으로 된 수형도로 나타낼 수 있는 반면, 리듬 구조를 잘 표시하기 위해 x로 표시하는 격자를 이용하여 그럴 수도 있다. 예컨대, communication이 5음절이라는 것을 x x x x x 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그보다 communication  
윗 단계인 음보나 단어도 역시 같은 표시를 이용하여 도표화할 수 있다.

그런데 이같은 운율 음운론의 이론적 측면을 발음 교육에 잘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필자의 두 번째 입장이다. 음절의 수는 다르나 음보는 그 수에 크게 관계없이 동일한 간격으로 발음된다는 것을 학습 현장에서 지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특히 영어가 강세 박자 언어임을 유의한다면 이같은 개념은 문장의 리듬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음보란 단위의 중요성을 모르고서는 가르칠 수가 없다. 영어에서는 유사한 무게의 강세가 충돌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강·약이 번갈아가며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음보의 중요성은 현장에서 더욱 부각되어야 된다고 본다. 더욱이 음절을 구분하는 원칙이 지켜진 후 강세를 지도한다면 앞에서 논한 바 처럼 더욱 규칙적인 방법으로 단어의 강세를 이해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같은 점 등이 음절 음운론과 운율 음운론 이론이 실제의 현장에 적용되는 유익한 경우라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 김순택, 영어 운율 범주의 계층적 조직,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1.
- 김중훈, 「음절음운론」, 서울 : 한신문화사, 1990.
- 박남식, “무계와 리듬-영어를 중심으로,” 「언어」 제10호, 충남대학교 어학연구소, pp.131-145, 1989.
- 손유원, 한국어와 영어의 음절비교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양동휘, 「영어음성학」, 서울 : 범한서적, 1986.
- 정 국, “음운론의 제 이론과 외국어 발음교육,” 영어영문학 34, 한국영어영문학회, 1988. pp.363-395.
- Abercrombie, D., *Studies in Phonetics and Linguistics*, London : Oxford University Press, 1965.
- Bloch, B. & G. L. Trager, *Outline of Linguistic Analysis*, Baltimore :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1942.
- Chomsky, N. & M. Halle,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New York : Harper & Row, 1968.
- Clements, G. N. & S. J. Keyser, *CV Phonology*, Cambridge : MIT Press, 1983.
- Coupler-Kuhlen, E., *An Introduction to English Prosody*, London : Edward Arnold, 1986.
- Fires, C. Charles, *Teaching and Learning as a Foreign Language*, Ann Arbor :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45.
- Fudge, E. C., “Syllables,” *Journal of Linguistics* 5, 1969. pp.253-286.

- Fudge, E. C., "Branching Structure within the Syllable," *Journal of Linguistics* 23, 1987, pp. 359-377.
- , "Syllable Structure : a reply to Davis," *Journal of Linguistics* 25, 1989, pp. 219-220.
- Gleason, H. A. Jr., *An Introduction to Descriptive Linguistics*, New York : Holt, Rinehart & Winston, 1961.
- Haugen, E., "The syllable in linguistic description," In Halle M. *et al.* eds. *For Roman Jakobson*, The Hague : Mouton, 1956, pp. 213-221.
- Hoard, J. E., "Aspiration, tenseness, and syllabification in English," *Language* 47, 1971, pp. 133-140.
- Hogg, H. & C. B. McCully, *Metrical Phonology : a Coursebook*,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 Hooper, J. B., *An Introduction to Natural Generative Phonology*, New York : Academic Press, 1976.
- Jones, D., *An Outline of English Phonetics*. Cambridge : W. Heffer & Sons.
- Kahn, D., *Syllable-based Generalization in English, Phonology*, Bloomington :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s Club, 1976.
- Kreidler, C. W., *The Pronunciation of English*, Oxford : Basil Blackwell, 1989.
- Liberman, M. & A. Prince, "On stress and linguistic rhythm," *Linguistic Inquiry* 8, 1977, pp. 249-336.
- Prator, C. H. Jr. & B. W. Robinett, *Manual of American English Pronunciation*, New York : Holt, Rinehart & Winston, 1985.
- Pulgram, E., *Syllable, Word, Nexus, Cursus*, The Hague : Mouton, 1970.
- Selkirk, E. O., "The role of prosodic categories in English word stress," *Linguistic Inquiry* 11, 1980, pp. 563-605.

- Selkirk, E. O., "The Syllable," In Hulst, van der & N. Smith, eds. Part II, 1982, pp. 337-383.
- Trager, G. L. & H. L. Smith Jr., *An Outline of English Structure*, Studies in Linguistics : Occasional Paper 3, Washington : American Council of Learned Societies, 1951.
- Vennemann, T., "Words and syllables in natural generative grammar," In Bruck, A. Fox, R. A. & La Galy, M. W. eds. *Papers from the Parasession on Natural Phonology*, Chicago : Chicago Linguistic Society, 1974, pp. 346-374.
- Vergnaud J. R. & M. Halle, "Metrical structure in phonology," In the Linguistic Society of Korea, ed. 1986, *Phonology and Morphology*, Seoul : Hanshin Publishing Co. 1978, pp. 17-70.



---

Abstract

The Application of Syllable and Stress Theory  
to Teaching the Pronunciation of English  
— with special reference to syllabic and metrical phonology

Kim Hyo-soon

*Major in English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Chong-hoon*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how the theories of syllabic phonology and metrical phonology, the latest ones in generative theory, can be applied to teaching the pronunciation of English.

What is an effective way by which syllable and stress theories may be applied to English education?

The syllable can be a phonological unit for three kinds of arguments in English phonology. First, the most explanatory statement of phonotactic constraints in English can be made only by reference to the syllabic structure of an utterance. Second, only via the syllable can English phonological processes be adequately stated. Third, a general statement of English

---

suprasegmental phenomena, such as stress and intonation, requires that segments be grouped into larger units which are the size of the syllable.

It should be noted that the English syllable is not linearly structured, but hierarchially organized into Onset and Rhyme, where the latter consists of Nucleus and Coda. As Kahn(1976), and Clements & Keyser(1983) demonstrate, a number of phonological processes can be satisfactorily explained by recognizing the syllable as a hierarchical unit.

This syllabic phonology can be usefully applied to teaching English in middle or high schools. The English syllable structure can be compared with the Korean syllable structure. The former can be formulated as CCCVCCCC, while the latter CGVC. Therefore, Korean learners of English who have been accustomed to the Korean syllable structure tend to insert an unnecessary vowel (i) into English words.

In order to avoid this false pronunciation, English teachers should teach the five principles of syllabification discussed in this paper. They must also teach syllabic consonants, which can constitute syllabic peaks on the basis of a sonority hierarchy.

The English stress, an important topic of metrical phonology is hierarchically analyzed on the metrical tree. Stress assignment in metrical phonology is labelled as strong(s) or weak(w), as Liberman & Prince(1977) suggest. This theory is different from that of Chomsky & Halle(1968), in that the latter treats stress as a property of individual segments.

In this metrical theory, the English stress is more explanatorily stated with the notion of foot, a phonological domain. As English is a stress-timed language, foot is an important constituent of the prosodic hierarchy. This is

composed of one stressed syllable and one or two unstressed syllables, and is a larger unit than the syllable, smaller than the phonological word. Using foot, Korean students can pronounce English sentences more effectively.

Grid theory can be an effective explanation of rhythmic structure as well. For example, the word 'communication' is represented as <sup>x</sup> communication, made up of five syllables, by using a grid marked X. In just the same way, foot and phonological words which are larger units than the syllable can be grid-marked on higher levels than the syllable level.

These metrical theories can be utilized effectively in the teaching of English pronunciation. It is necessary that English teachers should teach students, by recognizing that each foot composed of different syllables should be pronounced in the same length.

It should be realized that English is apt to escape stress clashing. English words do not formulate a strong syllable followed by a strong syllable, but a strong syllable followed by a weak syllable. As Korean students are taught this information, they can effectively learn English stress by intuition, doing away with the traditional method based on learning English stress by heart.

To conclude, English teachers had better teach the pronunciation of English by applying the two current phonological theories to the practices of English education.